



남포미술관 전경

전남 1호 등록미술관 ... 고흥 '남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여는 광형수 관장

“시골 마을에 문화의 씨앗 뿌렸으니 많지 않아도 누군가 누릴 수 있다면 그 뿐”



오지호 작 '조선폰 풍경'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임적순 작 '화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양수아 작 '작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고흥 영남면 양사리에 자리한 전남 제1호 등록 미술관인 남포미술관은 기적을 일궈냈다. 지난 2005년 2월 폐교를 리모델링해 문을 열 당시만 해도 무모한 도전처럼 비쳤다. 기우에 불과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리적 한계와 폐교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는 해마다 3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전남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자리 잡았다.

남포미술관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10년의 소회를 묻자 광형수(65) 관장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관장은 선전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폐교인 옛 영남중학교를 리모델링해 남포미술관을 개관했다. 영남중학교는 관장의 선친인 고(故) 광귀동 선생이 고흥 후배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지난 2003년 2월 36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폐교됐다.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서다. 남포(南浦)는 선전의 호다.

“아버지가 세운 학교가 폐교되니 정말 허무했어요. 폐교된 학교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 사업에 힘썼던 것처럼 저도 지역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싶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문화 인프라가 미미했던 탓에 전남 지역에 미술관은 생소한 공간이었다. 때문에 주위에서는 괜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다. 미술관 주변에 사는 주민들조차도 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심한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

김환기·오지호·양수아·진양욱 등 26명 작품 모아...24일부터 한달간 '과거 속에서 미래를 보다' 전시

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자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소수의 사람들만이라도 문화라는 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고생도 많았고, 어려운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다. 오래된 학교였던 탓에 해마다 수많은 시설비용이 들어갔고, 매년 6~8차례 여는 기획전을 위해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벅찬 일이었다. 사재를 쏟아부어 빚더미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부관장인 아내 조해정(61)씨와 노후에 쓰려고 모아두었던 돈과 미술관 앞에서 수십 년간 키워온 나무들까지 처분해야 했다.

또 기획전을 하기 위해 전국 미술관과 소장자들을 찾아다니며 허리를 굽히기도 했다. 지리적으로 먼 탓에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몇 해전부터는 딸 광혜원(36)씨가 내려와 함께 미술관을 꾸리고 있다. 가족 모두가 1인 다역을 하면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남포미술관과 소록도 주민들과의 인연도 특별하다. 관장은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지난 2013년 국립소록도병원 뒤편에 만든 대형벽화 '염원·소록의 꿈'을 꼽았다. 그는 당시 크라우드펀딩과 작가들의 재능기부, 후

원금 등을 모아 소록도 주민, 국립소록도병원 임직원, 자원봉사자의 얼굴 등을 850장의 대리석에 새겨 벽에 설치했다. 이 작품은 소록도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됐다.

또 불편한 몸을 지닌 한센인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도 했고, 미술관을 찾기 힘든 소록도 환우들을 위해 직접 작품을 들고 찾아가 전시회를 열어주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전국 미술관장 회의가 지역 최초로 남포미술관에서 열리기도 했다. 지난 2007년 '옛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보다'를 주제로 열린 민화전 때는 20일간 4000여 명이 찾기도 했다. 현재는 나로우주센터와 함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장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관장은 “누군가 알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문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바람직한 문화복지를 실천해나가고 싶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향수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포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 지역 사립미술관의 기획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대형전시다. 관장은 이번 전시를 위해 국립현대미술 등 전국 미술관과 소장자들을 찾아다녔다.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과거 속에서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남도 서양화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그 발아와 형성, 그리고 성장과 분화의 흐름을 더듬어 본다. 남도



광형수 관장

서양화단의 씨앗을 뿌린 김환기·오지호 화백부터 배동신·김보현·양수아·오승윤·진양욱·최상중 등 모두 호남의 대표적 작가 26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앞선 세대가 남긴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해요. 특히 후배 작가들이 남도 미술의 뿌리를 만든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창작의 새로운 원동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개막은 24일 오후 2시. 문의 061-832-000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시의회 조례 제정 필요하다

문화재단, 예술인 1027명 설문 권위·대표성·예산 확보 차원

광주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광주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에 대한 시민·예술인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조성 관련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지난달 17~31일 일반시민과 예술인 10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에서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조성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13.3%에 그쳤다. 그렇다(31.5%)고 대답한 사람들을 포함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44.8%에 머물렀다.

반면, 관심이 없는 사람은 15.1%였고 보통이라는 답변이 40.1%로 가장 많았다.

또한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조성을 위해서는 광주시 의회의 조례 제정 운동이 필요하고 엄격한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광주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광주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조성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사업의 제도적인 근거로서 조례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조례제정을 통해 권위와 대표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지속성과 예산지원 등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남대 문화전통대학원 강심경 교수는 “선정과정과 결과, 전시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관광 측면에서 문화도시 광주의 새로운 문화예술 관광(Art Tourism) 명소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만식 광주민예총 회장은 토론에서 “예술인 선정과 관련, 장르·활동시기·출신지역과 활동지역·생사 여부 등을 비롯해 남북예술인, 친일파 등 다양한 선정기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향 ‘금호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실내악’

24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다양한 악기의 앙상블로 이루어진 실내악 공연은 대규모 교향곡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다채로운 실내악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금호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실내악’을 통해서다.

레퍼토리는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4번’(바이올린 박신영, 첼로 이후성, 피아노 서현일), 뽀랴의 ‘목관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6중주’(플루트 이현경, 오보에 김영주, 클라리넷 주민혁, 바순 이우광, 호른 이윤범, 피아노 서은진),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8번’(바이올린 이종만, 2



24일 쇼스타코비치 곡을 들려줄 이종만·이수연·신정문·박문경씨.(왼쪽부터)

바이올린 이수연, 비올라 신정문, 첼로 박문경) 등이며 관악주자들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서곡을 들려준다. 그밖에 베르디의 ‘웅장한 아이다 행진곡’, 포레의 ‘파반느’, 커밍스가 편곡한 ‘스페인 포스터의 추억’ 등도 연주된다.

한편 이번 연주회는 광주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립교향악단과 금호터미널(주)간의 MOU를 통해 진행됐다. 티켓 가격 5000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부엌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완입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 전 종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

KT, 중앙초교, 금남로, 개림동, 한화생명, 구.한미소방, 동부소방서